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February 15, 2026, 10:30 a.m.

변화 주일 (Year A)

Transfiguration Sunday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d of Every Blessing

C1187 온 땅이여 주를 찬양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C1253 주를 찬양하며 I Just Want to Praise You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17:1-9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변화산 사건 The Transfiguration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291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출애굽기 EXODUS 24:12-18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 13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 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시편 PSALM 2

-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 5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 6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 7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 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 9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 10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 11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 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THE SECOND LESSON 베드로 후서 2 PETER 1:16-21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본문인 베드로후서 1 장 16 절에서 21 절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복음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신화)"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을 친히 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신비 체험에 머물지 않고, 이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이 등불처럼 어두운 데를 비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독자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증언이 구약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예언된 진리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예언은 인간의 자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며,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조명 아래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는 권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째 주제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철학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과 목격자의 증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복음의 역사성과 확실성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둘째 주제는 **‘어둠 속의 등불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어두운 데"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록된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주제는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림(carried along)"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어졌기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인간의 학문적 분석을 넘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우리는 복음의 확신 위에서 있습니까? 베드로는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 자신이 직접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치관과 '교묘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세상의 정보가 아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맡기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roi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사모하며, 그 권위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베드로가 목격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늘날 당신의 신앙에 어떤 확신을 주나요?
2. 당신의 삶에서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경험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성경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확신] 마태복음 17 장의 변화산 사건을 읽으며 베드로의 증언을 묵상하기.

화요일: [기록] 최근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세상의 소리'와 그에 대비되는 '성경의 약속' 한 구절 적어보기.

수요일: [정독] 시편 119 편 중 일부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등불로서의 가치를 고백하기.

목요일: [나눔]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신화가 아닌 '확실한 진리'임을 부드럽게 전하기.

금요일: [기도] 성경을 읽기 전 반드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라고 3 분간 기도한 후 말씀 펴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참되신 하나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목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뒤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마다 주의 말씀이 밝히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7:1-9

-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 6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 7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 8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